

김현환 전 차관,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초빙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학과장 류인평)는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전문경력인사 교수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김현환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정책국장,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문화관광 정책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문화·관광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조직리더십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인평 학과장은 "관광정책, 콘텐츠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인 김현환 전문경력 초빙교수가 관광정책 및 문화관광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죽향동,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 전달

남원시 죽향동(동장 허인선)에서는 지난 추석,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 손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죽향동창년회(회장 윤규선) 커피라면 26박스(환가액 52만원), 이마트24 생교잡(대표 조용일) 커피라면 13박스(환가액 26만원), 충신교회(담임목사 유광선) 현금 30만원, 명문당인쇄출판사(대표 이종근) 현금 30만원을 기탁해 관내 소외계층가정에 전달했다.

한편 허인선 죽향동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손길도 큰 힘이 되기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송신수배해 주신 지역업체와 단체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동면,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회

남원시 산동면(면장 김경숙)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일축산(대표 이훈)에서 돼지고기 200kg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 성금 30만원, (주)입광산업(대표 고혜숙) 백미 200kg 산동면 새마을금회지도자협의회(회장 김경철 박준재) 밀반찬 16세트, 병산태안광발전소(대표 김병선)가 백미 240kg를 기탁했으며, 전달받은 물품은 관내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했다.

한편 김경숙 산동면장은 "보내주시는 정성 가득한 마음은 지역 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고,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보 남원지사, '부패 Zero! 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 남원지사(지사장 박상길)는 최근 남원읍남시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금연실천 및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클린공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추석 명절 전후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의지 대내외 선포로 부패하고 청렴한 클린공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부패체제 2단계 개편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정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특사경 도입, 금연실천 등의 청렴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며, 윤리인권 경영 및 청렴실천 생활화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 문화예술 교류사업 '손에손잡고'

정읍시 돌레, 달하다리 일원서 성황리 막 내리

전국 문화예술 교류사업 '손에손잡고'가 최근 정읍 달하다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돌레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방방곡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비롯하여 체험부스·프리마켓·버스킹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일간 진행된 축제에는 정읍을 포함 10개 지역 총 35팀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가족단위 관람객과 시민 등 1000여명이 함께 했다. 1일차 본 공연에서는 정세운 아나운서의 사회를 시작 '조이풀'의 난타퍼포먼스로 공연의 서막을 열었으며, (사)돌레의 안수용 이사장의 기념사와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의 축사,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의장 고경운 거제시장 박중우의 영상축사로 이어졌다. 또한, 각 시·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퍼포먼스의 이석원씨를 비롯하여 양극연주자 윤은화씨, 힐링음악 팀인 팀 도토리, 댄스퍼포먼스 미스플라, 퓨전국악 센티멘탈로그, 집시프로젝트가 찾아온 관람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2일차 공연에서는 지역MC 장유미씨, 김효정씨, 신대호씨의 사회를 시작, 버스킹 무대와 특별무대를 이용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6시간 릴레이 공연이 펼쳐졌으며, 본 공연에서는 비보이댄스의 일브로코루를 비롯하여 소프라노 김성경씨, 서예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신 황로씨, 벨리댄스의 캐리벨리, 가수 김은주씨, 전자현악팀인 일렉타이가 출연하여 축제의 마지막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손에 손잡고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 돌레의 안수용 이사장은 "전국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 내 문화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단체들의 공연으로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 물질, 인적 자원의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정읍의 문화예술을 전국 방방곡곡 알리는데 저희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천현 우석대 총장, 추석 맞아 환경미화원에 선물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주와 진천캠퍼스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남천현 총장은 지난 8일 전주캠퍼스 환경미화원과 송교원 사무처장 등과 차담회를 갖고, 근무 시 애로 사항과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천현 총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교내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길 바라며, 근무환경 개선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동, 성수면에 50만원 기탁

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백종완)가 최근 성수면(면장 최정규)을 방문하여 현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추석 명절을 맞아 치즈테마파크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실시한 모금했으며,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백종완 원장은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모금을 하게 되었다"며 "10월 성공적인 임실치즈축제를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규 면장은 "설 명절에 이어 잊지 않고 성금을 기탁해 주신 치즈테마파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면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고산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이 최근 영농·부녀회장 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표회장 근절 교육을 펼쳤다.

이날 고산농협은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 150여명에게 동영상 보여 주며 대표회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 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국영석 조합장은 "전화금융사기와 대표회장으로 인한 피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협의 주 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협 창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은 2019년 754건, 155억원, 2020년 1,198건, 200억원, 2021년 1,699건, 30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2월 말 기준 177건에 35억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전주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전원들, 한복 입고 운행

전주 시내버스 운전원과 마을버스 운전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한복을 입고 승객들을 맞이했다. 전주시는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원 180여 명이 생활한복을 착용하고 버스를 운행하는 '한복데이'를 운영했다.



지난해 설날부터 매 명절마다 진행된 한복데이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 시내를 오가는 버스 운전원들이 우아하고 단아한 한복을 입고 고객들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추석에는 시내버스 5개사와 마을버스 1개사의 운전원 약 820명 중 28%가량의 운전원들이 참여했다. 자신의 한복을 보유한 운전원들은 본인의 한복을 입고 운전했으며, 한복이 없는 운전원들은 회사를 통해 한복을 빌려 행사에 동참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의 교류가 줄고 명절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가운데 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운전원들 덕분에 시민들에게 추석 분위기를 선물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데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키로 한 운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설날에 진행된 한복데이에는 운전원 257명이 동참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축사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축사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8월 15일 김제시 용지면의 돈사 화재로 1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274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다치고 15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전기118건, 부주의 69건, 기계 21건, 화차 5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활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2000만원 전달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은 추석을 맞아 최근 회의실에서 조합원자녀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쌓았기 때문에 인연 영농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신광식 조합장은 "우선한 우리지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학금 외에도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활농협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조합원자녀 대학생 346명에게 3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적십자사, 추석맞이 청렴 문화 캠페인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최근 추석을 맞아 전북적십자사 전직원이 참여해 전주 완산구 화개사거리 앞에서 전주 시민 및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은 △추석명절 공직가장 확립 철저 다짐을 담은 청렴 메시지 전달 △안전하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기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선홍 회장은 "추석을 맞아 전주시민과 귀성객들이 더 건강한 한가위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도민 모두가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전북적십자사도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적십자사는 이후에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확산해 건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